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

이 준 호

Abstract

Junho Lee. 2012. 6. 30. **A Study on teaching Korean Hedging Expression for KAP Learners.** *Bilingual Research* 49, 269-297. This article aims to conceptualize instructional content for teaching Korean hedging expressions for Korean learners with academic purposes. Hedging is widely known as the expression that writers or speakers to deliver their attitude of tentativeness and possibility towards to the statements they make. According to Hyland(1995), Hedging expressions present unproven claims with caution and softening categorical assertions and they are crucial to scientific writing where statements are rarely made without subjective assessments of truth. In the field of ESL, hedging is one of the most attention-receiving research topics for ESP learners and the various lists of English hedging expression as instructional contents for those learners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 Hedge is a area that is rarely discussed yet. Considering the expanding number of KAP learners, it is important to conceptualize Korean hedging expression as teaching content and to identify what expressions to teach. This article, therefor, will examine Korean scientific journals so as to discover what linguistic items perform a hedging role and analyze the items upon their linguistic features. I will, thereby, suggest a list of Korean hedging expression that needs to be included in instructional content for KAP learner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 words】 한국어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헤지(Hedge), 헤지 표현(Hedging Expression), 학문 목적(Academic purposes), 한국어 쓰기(Korean Writing), 학문 목적 쓰기(Academic writing)

1. 서론

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hedge) 표현을 어떠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양상에 비추어 이들 학습자를 위해 교육해야 할 헤지 표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의 급증 현상이 한국어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미 최근의 일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발표에서도 국내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가 83,8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의 수치인 12,314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680%의 성장세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들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및 한국어를 통한 수학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숙(2000), 최정순 외(2007), 박석준(2008) 등에서 지적하고 있듯,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성공적인 대학 수학에 실패하는 학습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의 부재 자체가 학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밝히는 학습자들도 여전히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내용적으로는 보다 실제적이고 정교화 될 필요성이 있으며, 주제면에서는 더욱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이준호(2010)에 따르면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위 논문 가운데 쓰기 영역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쓰기 능력이 보고서나 시험 답안 작성과 같이 좋은 학점 취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연구자들 또한 쓰기 능력의 향상에 주력하여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대학 수학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이 일반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에 비하여 기능 통합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또한, 쓰기에서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의 높은 효용성을 고려해 볼 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은 단독적 쓰기 교육만으로는 향상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특히 읽기 교육과의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며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술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좋은 학술 텍스트를 생산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며, 학술 텍스트를 학술 텍스트답게 읽어 내는 능력은 궁극적으로 학문 목적의 읽기 능력은 물론 더 나아가 쓰기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술 텍스트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학문 목적 학습자의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술 텍스트가 일반 텍스트와 변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헤지 표현에 주목하였다. 헤지는 필자의 주장에 직접성을 줄이고 완곡성을 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완화 표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헤지 표현의 잦은 출현은 학술 텍스트가 가지는 주요 특성 중의 하나이다. Hyland(1995a)에서는 학술 텍스트에서는 ‘헤지 표현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extensively hedged).’고 할 정도로 학술 텍스트가 가지는 헤지 표현 의존도를 강조하였다.¹⁾ 이처럼 학술 텍스트의 주요 특성인 헤지 표현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학술 텍스트의 성공적인 이해자와 생산자로 길러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한국어 헤지 표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 학습자의 헤지 표현 인식 양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어 헤지 표현 교육을 위한 표현 목록을 작

1) 이 연구에서는 그는 학술 텍스트에서 50 단어에 한 번씩, 두세 문장에 나타날 정도로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 사용이 광범위하다고 말하였다.

성해 보도록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헤지에 대한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언어학에서 ‘헤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G. Lakoff의 1972년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헤지를 ‘대상의 개념을 다소 불분명하게 만드는(to make things more or less fuzzy)’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이 이후로 다수의 연구에서 헤지 표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최근으로 오면서 특히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 표현 인식 및 사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Ken Hyland를 들 수 있는데, 1990년대 중반 EAP(English as Academic Purposes) 쓰기에서의 헤지 표현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Brown 과 Levinson(1978), Crompton(1997), Skelton(1998), Lewin(2005) 등에서도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 표현과 기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EAP 분야에서 헤지에 대한 연구가 주요한 주제임을 알게 해 준다. 이에 반해 한국어의 헤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명선(2006), 신영주(2011) 등의 연구가 한국어 헤지 표현에 전적으로 주목한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이 외 곽수진과 강현화(2009), 강현자(2009) 등이 한국어 완화 표지의 일부를 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음에서는 국내외의 이러한 연구를 중심으로 헤지의 정의와 기능, 유형 등에 대한 선행 이론을 살펴보겠다.

2.1. 헤지의 정의와 기능

상기한 Lakoff(1972)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헤지는 모호성을 나타내

는 표지라 할 수 있는데, 헤지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구어 담화의 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생각하다(think), 일종의(sort of), 아마도(maybe, possibly)’ 등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를 촉진하거나 공손함을 표현하고, 의례적인 언어 사용을 활발하게 하는 행위, 또는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부여하는 행위를 헤지로 규명하였다(Hyland 1996). 헤지에 대한 정의는 그야말로 학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Zuck와 Zuck(1986)에서는 저자가 진술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정의하였고(Hyland 1995a), Brown과 Levinson(1978)에서는 헤지는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였다. 본고에서는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 표현에 주목하는 바, 헤지를 정의함에 있어 이를 학술적으로 조명한 Ken Hyland의 관점을 채택하였는데, Hyland(1995a)에서는 헤지는 잠정성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필자가 자신의 진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헤지는 특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제안을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농후한 학문적 문어 담화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상기한 정의들을 학술적 관점에서 종합하면 헤지는 필자가 자기 주장의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분명히 검증되지 않은 제안에 조심성을 더하기 위하여, 혹은 확신이 있더라도 이를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도적 언어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헤지를 이와 같이 정의할 때, 이에 대한 한국어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 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거시 구조의 모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때문이다’와 비교하여)
- 나. 이 실험의 결과는 2장에서 제시한 필자의 가설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증한 것은 아마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 구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 담화에서의 헤지가 대체로 모호성이나 공손성의 표지로 사용되는 반면, 학술적 담화에서의 헤지는 확실성의 경감이나 조심성의 표지로 사용되어 학술적 헤지의 기능이 일반적 상황에서의 그것과는 대변됨을 말해 준다. Hyland(1995a)에서는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개념이나 의미의 재구성 및 재해석이 필수적인 학술적 담화에서 필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자신의 제안을 기술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이러한 헤지는 확실하지 않은 과학적 주장을 언급함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조심성을 더하여 그 언급의 정밀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며 이로써 사실 정보와 잠정적 혹은 추론적인 필자의 견의 구분이 필수적인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가 가급적이면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필자가 자신의 견해에 대한 반박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게 해 준다. 학술 텍스트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술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동시에, 지나치게 자신 있는 표현을 삼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경감시키고 이로써 학계에서의 명망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헤지는 필자와 독자 간의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필자는 독자에 대한 존중과 협력 의지를 포함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독자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말하자면 강한 주장은 피드백이나 논쟁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게 되므로 결국 독자를 수동적으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는 절대적 주장을 피하고

겸손함을 더하며, 대안의 여지를 남겨두게 하여 필자와 독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헤지의 기능을 언급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다소간 상세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헤지의 기능을 이와 유사하게 파악하고 있다. 가령 위의 연구와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Crompton(1997)이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Lewin(2005)에서도 헤지의 기능에 대한 이와 유사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Crompton(1997)에서는 헤지의 기능을 ‘대략성과 방어의 기능’, ‘주석어의 기능’, ‘겸손과 공손의 기능’, ‘판단 조동사로서의 기능’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에서는 형태 중심적 분류와 기능 중 내용 중심적 분류가 다소 혼재하여 가시적으로는 Hyland(1995)의 기술과 공통점이 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기능들에 설명을 살펴보면, ‘대략성과 방어의 기능’과 ‘판단 조동사로서의 기능’은 전술한 연구의 첫 번째 기능에 부합하며, ‘주석어의 기능’은 두 번째 기능에, 그리고 ‘겸손과 공손의 기능’은 마지막 기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Lewin(2005)에서도 헤지가 진술의 확실성에 대한 완화 기능, 주장에 대한 방어적(정치적) 기능, 또한 독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가 갖는 기능은 주장에 대한 지나치게 확실한 언급을 삼가게 하고, 학계에서의 반론의 여지를 남겨 두며, 독자에게도 생각할 여지를 남겨 두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2.2. 한국어교육에서의 헤지 표현 연구

한국어 헤지 표현이나 헤지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한국어에 나타난 공손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 연구는 명확히 헤지 표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볼 수 없다. 한국어 헤지 표현에

대해서는 신명선(2006)과 신영주(2011)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데, 두 연구에서 모두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에 주목하였다.

신명선(2006)의 경우에는 국어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 사용 양상에 주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트 52편 중 서론 부분만을 대상으로 헤지 사용 양상을 살피었다. 이 연구의 필자는 서론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학술 텍스트에서는 서론이 헤지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헤지가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 제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볼 때, 오히려 비단 서론에서뿐만이 아니라 본론이나 결론에서도 헤지 표현의 사용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주제와 연구 방법을 보았을 때, 국어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의 목록이 제시될 것을 기대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헤지를 언어 사용의 전략으로 규명하며, 때문에 이에 대한 목록 작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도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의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헤지의 실현 양상을 분류하였는데, ‘가능성과 추측’, ‘일반화의 방지’, ‘드러내기-숨기기’, ‘한정’, ‘전제와 함축(부정 표현)’, ‘수행성 약화’가 분류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의 예시를 볼 때, 일부는 기능적 분류에 가깝고 일부는 통사적 분류에 가까워 그 분류의 체계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 연구는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주목한 최초의 연구에 가깝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서론만을 대상으로 한 점,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 못한 점, 그 분류상의 체계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신영주(2011)은 보다 대조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사이의 헤지 표현 사용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학위 논문 텍스트의 대표적인 특징을 헤지 사용으로 보고, 학위 논문의 서론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의 필자는 앞

서 언급한 신명선(2006)의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고 분류의 예가 형태적 범주를 달리하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가능성과 추측, 완화된 표현을 중심으로 대상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헤지 표현을 분류함에 있어 Hyland(1998)의 연구 결과를 압축하여 부가적 완화 표지와 내용 중심 완화 표지로 크게 나누고 내용 중심의 완화 표지는 다시 정확성 중심의 완화 표지와 필자 중심의 완화 표지로 단순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헤지 사용이 더욱 많고 다양함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 100편의 학위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헤지 표현의 대표적 기능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의 완화 표지가 모국어 화자에게서는 전혀, 중국인 학습자에게서는 단 한 건밖에 나타나지 않는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분석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불확실성의 완화 표지를 ‘아마도’, ‘어쩌면’ 등과 같은 부사 어휘에서만 찾으려 했으므로, 이와 같은 표현이 학위 논문에는 어울리지 않아 사용이 배제되었으며, 이를 대신할 다른 형태 범주의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을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는 거의 최초로 헤지 표현에 대한 대조분석적, 교육학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임을 감안할 때, 그 연구의 방법이 과학적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상기한 연구들을 살펴 볼 때, 한국어교육을 위한 헤지 표현 연구에서는 헤지 표현의 분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되, 특히 헤지의 기능과 형태의 관련성에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신영주(2011)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헤지 표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외국인 학습자의 헤지 표현 사용 이전에 헤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헤지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밝히고 헤지 표현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어 교육용 헤지 표현 목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외국인 학습자의 헤지 표현 인식 조사

3.1.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학문적 목적 하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간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 이러한 학습자 인식 조사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나, 헤지 표현 교육에 대하여 논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인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지 그렇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조사의 내용은 20명의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헤지 표현이 포함된 학술 텍스트를 읽은 후, 이 텍스트에 사용된 헤지 표현을 찾아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이 조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 1) 실험 참가자 : 고급 수준의 다국적 학문 목적 학습자 20명²⁾
- 2) 참가자 국적 : 중국(5명), 일본(3명), 러시아(2명), 대만(2명), 태국(2명), 베트남(2명), 이탈리아(1명), 호주(1명), 우즈베키스탄(1명), 타지키스탄(1명)
- 3) 실험 텍스트 : B 대학교의 유학생용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A4 2장 분량의 텍스트³⁾

2) A대학교 한국어교육 기관의 한국어 최상급 과정에 등록하여 수학 중인 입학 전 과정(예비 과정) 학습자로 모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숙달도 상으로는 고급 수준에 해당한다.

3) B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텍스트를 선정한 것은 먼저 A대학교 교재 사용 시, 이 학습자들이 이 텍스트를 학습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 타 대학교의 유학생용 교재에 비하여 선정한 B대학교의 텍스트가 길고 헤지 표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셋째 주제가 특정 전공의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고 대중문화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 스키마 부족으로 인한 텍

3.1.1. 1차 조사

본 연구는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가 실패하여⁴⁾ 조사 방법을 바꾸어 다시금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헤지 표현에 대하여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와는 달리 2차 조사에서는 약 30분에 거쳐 학술 텍스트의 특성과 헤지 표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짧은 예문을 제시하여 헤지 표현의 예를 보여 주었다. 이 경우, 헤지 표현의 예는 제시될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일시적인 교육 효과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시 1차 조사에서와 동일한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이 텍스트에는 헤지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아직 헤지 표현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기 전이므로 헤지 표현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선행된 연구의 결과들에서 차용하였다.⁵⁾ 즉, 신영주(2011)에서 제시된 예를 일차적으로

스트 이해의 장애 요소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텍스트를 개작하였으며, 개작은 이 텍스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일부 헤지 표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4) 첫 번째 조사에서는 헤지 표현의 기능과 역할, 예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는데, 자세한 교육 후 실험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교육 효과로 인하여 학습자의 인식 수준이 향상되어 실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헤지 표현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정도로만 간략히 설명하고 텍스트를 제시한 한 후, 여기에 사용된 헤지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의 헤지 표현이 인식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말하자면 참가 학습자들은 헤지 표현을 거의 찾지 못하였다. 또한 ‘그렇다면, 뿐만 아니라, 그러나’와 같은 담화 표지를 헤지 표현이라고 찾은 수가 많아, 학습자들이 헤지 표현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로써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차 조사의 내역과 결과는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5) 신영주(2011)에서는 헤지 표현을 완화 표지로 명하였으며, 신명선(2006)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다음의 예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개작하였다.

한국어 헤지 표현의 예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성한 다음 학습자들이 이러한 헤지 표현의 예를 찾아 낼 수 있는 지를 살핀 것이다.

다음은 텍스트에 포함된 헤지 표현과 학습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인지한 정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텍스트 내 헤지 표현과 학습자 인지율6)

	헤지 표현	제시된 문장	학습자 인지율	비고
1	아마도	... 그것은 아마도 스타가 대중이 가지고 있는 ...	75%	
2	-(이)르 것이다	...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일 것이다	55%	
3	-는 것이다	... 이상적인 인간형의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45%	평균 이하
4	일반적으로	... 스타라는 존재는 일반적으로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	65%	
5	-고 +보다	...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30%	평균 이하
6	-(으)르 수 있다	...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70%	
7	-(으)로 보이다	... 볼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0%	평균 이하

구분	예	
부가적 완화 표지	거의, 다소, 비교적, 어느, 어떤, 아마(도), 어쩌면 등	
내용 중심 완화 표지	정확성 중심	-고 + 전달 동사, 고+인지 동사 등
	필자 중심	-(으)ㄴ/는 편이다, -(으)ㄴ/는/르 것 같다, -(으)ㄴ/는/르 듯하다, -(으)ㄴ/는가 보다, -(으)르 것이다, -(으)르 법하다, -(으)르 수 있다, -(으)르까 생각하다, -(으)로 보다/보이다, -아/어/여 보이다, -겠-, 가능하다, 가정/추측/추정하다, 의의가 있다, 짐작하다, 필요성이 있다, ‘부정표현+완화표지’, 본고, 본 연구, 연구자, 우리 등

6) 학습자 인지율은 전체 응답자 수 중, 제시된 표현을 찾아낸 학습자의 수를 뜻한다. 가령 인지율이 50%인 경우는 20명의 학습자 가운데 10명의 학습자가 제시된 텍스트에서 해당 표현이 헤지의 기능을 한다고 응답했음을 의미한다.

8	-겠-	...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스타 시스템이라 하겠 다. ...	30%	평균 이하
9	수밖에 없다	...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0%	평균 이하
10	-(으)르 것이다	...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5%	
11	-다는 것이다	...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50%	
12	-고 말하다	... 또 스타는 소모품으로 변해 결국 버려지고 있다고 말한다	30%	평균 이하
13	필요가 있다	... 연결하는 중간 단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5%	평균 이하
14	-다는 것이다	...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45%	평균 이하
15	어떤	... 또한 어떤 면에서는 대중문화의 생산자인 기업들의 윤리 의식 역시 요구된다. ...	70%	
16	-(으)르 것이다	...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60%	
인지율 평균			48%	

표본이 된 학습자의 수가 많이 않고, 또 등장한 헤지 표현의 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단언할 수 있는 바는 아니나 위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를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헤지 표현 인지율은 50% 이하로 나타나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 중 절반 정도를 인식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둘째, 인지율이 높았던 헤지 표현을 보면 대체로 어휘적 표현임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어떤’ 등의 표현은 각각 75%, 65%, 70%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비율상의 상위 그룹을 형성하였다. 반면, 인지율의 순위가 낮았던 것으로는 ‘-겠-’, ‘-(으)로 보다’, ‘-(으)로 보인다’, ‘-고 말하다’ 등이 있는데, 주로 형태적 가시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표현의 길이가 짧은 것들이 해당되었다. 즉, 학습자들은 비교적 가시적

인 어휘적 표현은 쉽게 인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표현의 경우에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ㄴ 것이다’, ‘-(으)ㄴ 것이다’, 더불어 ‘-(으)ㄴ 수 있다’ 등의 표현이 어휘적 표현 다음으로 높은 인지율을 보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전성어미 ‘ㄴ’이 포함되어 미래 혹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을 다수 학습한 바 있어 이것이 포함된 경우, 추측의 기능을 나타내는 헤지 표현으로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신영주(2011)의 목록을 중심으로 헤지 표현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기도 하다’를 제시 목록에서 삭제하였으나, 이 텍스트에는 6번에 걸쳐 ‘-(이)기도 하다’가 등장하였고, 여러 차례 등장하였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몇몇 학습자들이 이를 헤지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내었다. 이는 ‘-(이)기도 하다’도 헤지 표현으로의 기능을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며, 더불어 신명선(2006), 신영주(2011) 등에서 제시한 헤지 표현의 예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고의 이어지는 장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트를 분석하여 한국어 헤지 표현의 사용 양상을 밝히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용 헤지 표현의 목록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4. 한국어교육용 학술적 헤지 표현

4.1. 헤지 표현의 분류 기준 설정

본고에서는 한국어 헤지 표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헤지 표현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한국어 헤지 표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헤지 표현에 대한 기능적 분류에 앞서 형태적 분류가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Ken Hyland의 비교적 최근 연구인 Hyland(2000)에서는 다시 헤지의 형태에 주목하였는데, 헤지 표현의 경우, 형태적 가시성이 떨어져 학습자들이 헤지 표현을 발견하지 못하여 학술 텍스트를 읽음에 있어, 이러한 헤지의 신호를 간파하지 못하고 필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며, 명제적 정보를 잘못 이해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즉,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헤지의 기능을 분석하기 이전에 이를 찾아내고 이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헤지의 형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읽기와 쓰기의 상관성을 보았을 때에도, 읽기 텍스트에서 헤지 표현을 잘 인지할 수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좋은 쓰기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경우에도 헤지 표현의 형태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 헤지 표현의 예들을 형태별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위한 분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Holmes(1988)에서는 학술 텍스트에서는 나타나는 헤지의 표면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는데, ‘동사류, 부사구 구성, 형용사, 조동사, 양태 명사, 제한 조건 언급, 모형·이론·방법론에 대한 언급, 지식의 부족에 대한 언급’이 그것이다. Crompton(1997)에서도 이와 유사한 헤지 표면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이 연구에서의 분류는 ‘be 동사 이외의 계사, 판정 조동사, 명제가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절, 명제가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사, 명제가 잠정적일 수 있다는 책임감을 표시하거나

7)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동사류 : (lexical verbs) : indicate, suggest, appear 등
- 부사구 구성 : quite, almost, usually 등
- 형용사 : likely, possible 등
- 조동사 : would, may, could 등
- 양태 명사 : possibility, assumption, estimate, tendency 등
- 모형·이론·방법론에 대한 언급 : if this scheme is correct, viewed in this way 등
- 제한 조건 언급 : we did not succee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등
- 지식의 부족에 대한 언급 : we do not know whether, one cannot exclude 등

사실적 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사, 가설에 근거하거나 필자가 이러한 가설에 대한 책임이 있을 표현한 문장'과 같다.⁸⁾ 이들 분류는 공통적으로 어휘 단위의 표현과 절 단위의 표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어휘 단위는 주로 동사, 부사, 형용사, 조동사를 중심으로, 절 단위의 표현은 이들을 포함하거나 혹은 직접성이나 강요성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사된 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조동사 경우는 한국어에서 그대로 차용할 수 없으며, 한국어에서는 이를 대응하는 다양한 양태 표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절 단위 표현에 대한 언급에 있어, Crompton(1997)의 분류는 주로 어휘 동사를 포함한 문장의 통사 구조의 변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통사 체계가 다른 한국어 경우에는 그래도 사용하기 힘들며, 한국어에서는 주로 주어진 동사의 피·사동형이나 그 동사와 양태 표현의 복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Holmes(1988)의 분류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대한 전략적으로 완전히 혹은 반쯤 정형화된 표현(fully formulaic or semi-formulaic expression)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가 교육적으로는 보다 편리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헤지 표현의 표면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8)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각 표면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be 동사 이외의 계사 : The moon **appears** to be made of cheese.
- 판정 조동사 : The moon **might** be made of cheese.
- 명제가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절 : **It is likely that** the moon is made of cheese.
- 명제가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사 : The moon is **probably** made of cheese.
- 명제가 잠정적일 수 있다는 책임감을 표시하거나 사실적 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사 : **I suggest that** the moon is made of cheese. /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moon is made of cheese.
- 가설에 근거하거나 필자가 이러한 가설에 대한 책임이 있을 표현한 문장 : These findings **suggest** a cheese moon.

1) 어휘·문법적 표현

- (1) 판정 의미의 동사 및 그 동사의 피·사동형 : 보다, 보이다, 나타나다 등
- (2)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류 : 가능하다, 바람직하다, 어렵다 등
- (3) 양태 부사 및 부사, 부사구, 부사적 표현 : 아마도, 대체로, 비교적 등
- (4) 양태성을 가진 명사 : 가능성, 필요성, 추측 등
- (5) 양태 의미의 선어말·연결·종결어미 표현 : -겠-, -(으)ㄴ 수 있다, -(으)ㄴ 것이다 등

2) 전략적 (정형화된/준정형화된) 표현

- (1) 제한 조건 언급 : 단언하기는 이르나, 한계가 있지만
- (2) 모형·이론·방법론에 대한 언급 : 이 실험의 결과가 맞다면, 이 가설에 근거한다면 등
- (3) 지식의 부족에 대한 언급 : 한계가 존재한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등

4.2.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

4.2.1. 학술 텍스트의 헤지 표현

본고에서는 표면형 분류에 의하여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헤지 표현 사용 양상을 살피었는데, 인문 과학 계열, 사회 과학 계열, 자연 과학 계열에 해당하는 등재지 수록 논문 각 3편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총 9편⁹⁾의 논문을 계열별로 3편씩 나눈 것은 본격적으로 이러한 전공 영역에 따른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특

9) 분석 논문의 저자와 제목은 부록에 실었다.

정 전공 영역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고자 함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어 헤지 표현의 선행 연구들은 모두 국어국문학의 하위 연구 분야만을 대상으로 텍스트를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특정 전공 영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계열 논문을 균등하게 나누어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서론 부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해당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편수는 적으나 어절수로는 약 22,000어절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헤지 표현이 서론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본론과 결론 부분에서도 필자의 의견과 의도, 주장 등이 빈번히 나타나므로 본론과 결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논문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의 예이다.

1) 어휘적 및 문법적 표현¹⁰⁾

(1) 판정 의미의 동사 및 그 동사의 피·사동형 :

보다, 보이다, 알다, 내보이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생각하다, 생각되다, 기대하다, 기대되다, 예상하다, 예상되다, 파악하다, 파악되다, 간주하다, 간주되다, 이해하다, 이해되다, 설명하다, 설명되다, 판단하다, 판단되다, 평가하다, 평가되다, 확인하다, 확인되다, 고려되다, 의미하다, 분석되다, 사료되다, 시사하다 등

10) 이러한 동사, 형용사, 명사의 경우, ‘59%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의미한다’ 등과 같이 객관적 서술에 사용된 예는 헤지 표현으로 보지 않았으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등과 같이 확실한 표현을 삼가기 위해 사용된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또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복합형으로 사용된 것은 각 사용을 분리하여 합산하다.

(2) 긍정적 ·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류 :

가능하다, 바람직하다, 어렵다, 쉽다, 필요하다, 당연하다, 타당하다, 현저하다, 필수적이다, 적합하다, 적절하다, 효과적이다, 이상적이다 등¹¹⁾

(3) 양태 부사 및 부사구, 부사적 표현 :

아마도, 대체로, 비교적, 꽤, 대략적으로, 잠정적으로, 다소, 일차적으로는, 상당 부분은, 일종의, ~ 중의 하나, 등

(4) 양태성을 가진 명사 : 가능성, 필요성, 중요성, (뜻, 의미, 의도, 제한, 한계, 경향, 문제, 결함, 비중, 경우)¹²⁾ 등

(5) 양태 의미의 선어말 · 연결 · 종결어미 표현 :

- 선어말 어미 : -겠-, -리-
- 연결 어미 표현 : -(으)ㄴ 지
- 종결 어미 표현 : -(으)ㄴ 수 있다, -다/(이)라고 할 수 있다, -(으)ㄴ/는/-(으)ㄴ 것이다, -다/(이)라는 것이다, -(이)기도 하다, -게 되다 등

2) 전략적으로 사용된 정형화된/준정형화된 표현¹³⁾

(1) 제한 조건 언급 :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이유를 배제할 수 없지만, 일반화할 수는

11) ‘쉽다, 현저하다’ 등은 주로 ‘쉽지 않다, 현저하지 않다’ 등의 부정 표현으로 나타났다.

12) 괄호 안의 명사들의 경우, 양태성을 가졌다고 하기 어려우나, 헤지 표현에 자주 출현하여 우선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13) 연구의 제한이나, 지식 부족 등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제시된 표현 외에도 ‘~라고는 할 수 없다’, ‘아직은 ~임을 알 수 없다’ 등과 같이 표현으로 제시된 것들도 많으나 이는 ‘어휘 · 문법적 표현’으로 포함시켰다.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정 하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 없겠지만, 오해를 줄여지가 있겠지만, 그 차지이가 미비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등

(2) 모형 · 이론 · 방법론에 대한 언급 : 이 ~ 실험의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자면,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볼 때, 분석 자료는 ~라고 말해 준다,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탐사의 결과만을 해석하자면, ~의 문제에 국한하는 경우, 등

(3) 지식의 부족에 대한 언급 : 한계가 존재한다, 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등

4.2.2. 분석 대상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의 사용 양상

다음은 이러한 헤지 표현의 출현 회수와 빈도 등의 사용 양상을 종합하여 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2>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 표현 사용 양상

분류		회수	빈도(%)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항목(14)
어휘 · 문법적 표현	동사류	358	31.29	
	형용사류	149	13.02	
	부사류	97	8.48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항목(14)	비중
· 보이다 (19.2%) · 나타나다(13.4%) · 보다(11.1%) · 분석되다(7.8%) · 나타내다(6.2%)	상위 5개 항목의 비중 57.7%
· 가능하다 (34.6%) · 필요하다(26.5%) · 필수적이다(9.8%) · 좋다(6.6%) · 적합하다(4.1%)	상위 5개 항목의 비중 81.6%
· 비교적 (27.4%) · 다소 (17.2%) · 주로 (6.1%) · 대체로 (3.2%) · 상대적으로 (2.8%)	상위 5개 항목의 비중 56.7%

	명사류	77	6.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12.6%) · 가능성 (10.2%) · 필요성 (8.4%) · 중요성 (6.4%) · 경향 (1.5%) 	상위 5개 항목의 비중 39.1%
	어미 표현류	387	33.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르 수 있다(31.6%) · -다/라고 할 수 있다 (27.3%) · -(으)르 것이다 (14.9%) · -다는 것이다 (9.8%) · -(으)ㄴ 것이다 (6.3%) 	상위 5개 항목의 비중 89.9%
정형·준정형화된 표현	제한 언급	32	2.80	6.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우에 따라서는¹⁵⁾ · 단언/확언/증명할 수는 없지만 · 여러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모형·이론 언급	29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모형의 경우에는 · ~한 결과만을 보자면 ·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식 부족 언급	15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가 있다/존재하다 · 더 ~한 논의가 필요하다 · -(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1,144	100			

위의 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분석의 대상이 된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에서는 동사와 종결 어미 표현에 의한 헤지 표현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종결 어미 표현에 의한 헤지가 전체의 33.83%를 나타내었고, 동사에 의한 표현이 전체의 31.29%를 나타내어, 이 두 형태의 사용이 압도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실제의 사용에서는 많은 경우 이러한 두 표현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¹⁶⁾ ‘볼 수 있다’, ‘분석된다고 할 수 있다’, ‘나타내는

14) 여기서의 비율은 해당 항목 내에서의 사용 비율을 나타낸다.

15) 준정형화된 표현에서는 표현의 변이형이 많고 그 분포가 매우 산발적이라 상위 항목의 사용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16) 복합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것이다' 등이 대표적인 예로, 따라서 실제 이러한 표현을 하나로 간주하게 되면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주로 문장의 종결부에서 판정의 의미를 가진 동사와 수행성을 약화시키는 어미 표현의 사용이 한국어 헤지 표현의 주요 표면형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형화된 표현 사용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영어 헤지 표현의 경우에도 이러한 표현이 어휘·문법적 표현에 비하여 사용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 학술 담화를 분석한 경우인 Hyland(1995a)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이 대략 5~6%정도를 차지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문미에는 다시 상기한 동사와 종결 어미에 의한 헤지가 재등장하였다. 이는 상기한 동사와 어미 표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즉, 어미 표현이 발달한 한국어의 경우, 전략적으로 정형화된 표현에 의존하지 않아도 직접성을 완화하고 조심성을 부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발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행 연구에서 양태 부사의 사용을 주요 헤지 표현 항목으로 뽑은 것에 비해 볼 때, 부사에 의한 헤지는 비교적 그 빈도가 낮았으며, 특히, 위의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사 단독으로 헤지의 기능을 수행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부사가 사용되더라도 문미에서 상기한 어미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헤지를 위한 부사 사용은 상당 부분 수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미 표현 가운데, 선어말 어미 '-겠-'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었

- a. -이/가 중요하다. (헤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b. -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다' 동사에 의한 헤지 표현을 사용한 경우)
- c. -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으)ㄴ 수 있다'에 의한 헤지 표현을 사용한 경우)
- c. -이/가 중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복합형 헤지 표현을 사용한 경우)

으며, ‘~ 하리라 본다’의 ‘-리.’도 마찬가지로 그 용례가 매우 적었다. 대신 종결 어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 중에서 ‘-(으)ㄴ 수 있다’와 ‘-다/라고 할 수 있다’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나타난 ‘-(으)ㄴ/는/(으)ㄴ 것이다’나 ‘-는 것이다’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았으며, 이 외의 표현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헤지의 기능을 가지는 한국어 종결 표현으로는 이들이 대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한국어 헤지는 ‘-(으)ㄴ 수 있다’, ‘-다/라고 할 수 있다’, ‘-(으)ㄴ/는/(으)ㄴ 것이다’, ‘-는 것이다’ 등의 종결 어미 표현과 결합된 동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사(구)나 전략적 표현 등이 동반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3. 한국어교육용 학술적 헤지 표현

이번 절에서는 상기한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 헤지 표현을 선정해 보았는데, 위의 분석 결과대로, 동사 및 종결 표현이 한국어 헤지 표현의 대표적 유형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었다. 또한 목록의 제시 또한 본고에서 의도한 바대로 형태적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목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헤지 표현 목록이다. 이러한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많은 복합형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이러한 표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절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조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덩어리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복합형 표현을 그대로 살려 제시하였다.

<표 3> 한국어교육용 학술적 헤지 표현

유형	항목	자주 사용되는 표현	예)	
핵심이 되는 표현	동사 중심 표현	·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ㄴ 볼 수 있다 · -(으)/(이)ㄴ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 -다/라고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보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보인다 · ~ 것처럼 보인다 · -(으)로 보이기도 한다. · -(으)/(이)ㄴ 것으로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 소비재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ㄴ 알 수 있다 · -(으)/(이)ㄴ 것으로 알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라고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춰야 함을 알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타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나타났다 · -이/가 나타났다 · ~ 것이 나타났다 · ~ 점이 나타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비중을 낮출 필요성이 나타났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나타난 것이다.
		· 나타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를 나타냈다 · -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임을 나타냈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라는 것을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하다 · 예상하다 · 이해하다 · 파악하다 · 판단하다 · 분석하다 · 고려하다 · 설명하다 · 간주하다 · 평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으)로 + 피동형 ‘되다’ · -(으)ㄴ 수 있다 · -다고 할 수 있다 · -기도 하다 · -(으)ㄴ 것이다 · -게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으로 간주하게 된다. · 소비재의 비중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p>형용사 중심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다 · 필요하다 · 적합하다 · 타당하다 · 바람직하다 · 이상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라고 할 수 있다 · -(으)ㄴ 것이다 · -ㄴ/ㄴ 것으로 보인다 /나타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소비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p>명사 중심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가능성 · 필요성 · 중요성 ·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가 있다 · -이/가 있을 것이다 · -이/가 보인다 /나타나다/제시되다 · -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타나다/제시되다 · 을/를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 소비재의 비중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대체로 소비재의 비중이 낮게 조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부가적 표현	부사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상대적으로, 대체로, 대략적으로, 주로 · 다소, 약간, 어느 정도, 일종의, 하나의 · 그리, 거의 ~ 안/못 등의 부정 표현
	(준)정형화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만을 보자면, -을/를 고려하자면, ·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외가 나타날 수 있으나, 여러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 한계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아쉬움이 남는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5. 결론

본고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술 텍스트를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술 텍스트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인 헤지 표현 교육에 주목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의 한국어 헤지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용 헤지 표현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헤지 표현 인식 수준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가시성이 있는 부사 표현 등에서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종결 표현으로 수행된 경우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형태적 가시성이 적은 경우에는 그것이 헤지 표현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헤지의 기능적 분류에 앞서 형태적 분류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고,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을 표면형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영어 헤지 표현의 표면형을 한국어의 유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판정 의미의 동사 및 그 동사의 피·동형,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류, 양태 부사 및 부사, 부사구, 부사적 표현류, 양태성을 가진 명사류, 양태 의미의 선어말·연결·종결어미 표현류’ 등으로 나누

고 여기에 ‘제한 조건 언급, 모형·이론·방법론에 대한 언급, 지식의 부족에 대한 언급’ 등과 같은 정형화되었거나, 준정형화된 전략적 표현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학술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의 경우에는 판단 동사류와 종결 어미 표현이 결합되어 복합형으로 사용되는 헤지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부사어나 전략적 표현에 의한 헤지 표현은 부가적이거나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발견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용 헤지 표현 목록을 작성하였고, 덩어리 표현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학습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고에 조사와 분석은 그 수가 제한적이어서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거나 헤지 표현의 유형과 그 예를 제시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논의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차후에는 헤지 표현의 기능에 대하여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시도하여, 본고의 결과와 더불어 한국어 헤지 표현 교육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자(2009). 학문적 글쓰기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 언어와 문화, <언어와 문화> 5-1. pp.1-22.
- 곽수진, 강현화(2009). 학술적 논문의 대조수사학적 연구, <외국어교육> 16-1. pp.507-528.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를 기초 연구; 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1-2. pp.1-19.
- 박석준(2008). 국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 분석; 입학 후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2. pp.1-32.
- 박수경(211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작문에서의 단락 조직화 양상 연구: 상위

- 학습자와 하위 학습자의 작문 비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8. pp.85~108.
- 신명선(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p151-180.
- 신영주(2011). 「한국어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2010). 자기주도적 쓰기 기술 및 전략 연구; 한국어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학> 48. pp.269-297.
- 최은지(2009). 외국인 유학생의 보고서 작문에서의 태도 표현 양상, <이중언어학> 40. pp.213-236.
- 최정순 외(2007). 해외인적자원 유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보고서.
- 홍윤기(2009). 상적 의미에 따른 연결어미의 결합 제약 연구: 메타언어를 활용한 연결어미 교육을 위하여, <이중언어학> 40. pp.213-236.
- Brown, P. & Levinson, S.(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mpton, P.(1997). Hedging in Academic Writing: Some Theoretical Problem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6-4. pp. 271-287.
- Homles, J.(1998). Dount and Certainty in ESL Textbooks. *Applied Linguistic* 9-1. pp.20-44.
- Hyland, K.(1995a). The Author in the Text: Hedging Scientific Writing. *Hong Kong Papers in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18. pp.33-42.
- Hyland, K.(1995). Writing Without Conviction? Hedging in Science Research Articles. *Applied Linguistic* 17-4. pp.433-454.
- Hyland, K.(1996). Nurturing Hedges in the ESP Curriculum. *System* 24-4. pp.477-490.
- Hyland, K.(2000). Hedges, Boosters and Lexical Invisibility: Noticing Modifiers in Academic Texts. *Language Awareness* 9-4. pp.179-197.
- Lakoff, G.(1987).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Chicago Linguistic Society Papers* 8. pp138-228.
- Lewin, B, A.(2005). Hedging: and Exploratory Study of Authors' and Readers' Identification of 'Toning Down' in Scientific Texts.
- Skelton, J.(1988). Comments in Academic Articles. In Grunwell, P (ed.). *Applied Linguistics in Society* 17-4. pp.433-454.

<부록> 분석 논문

1. 지혜명(2008). “지역간 교역의 추정: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추론.” 『경제학연구』 57-4. pp.135-163.
2. 한상필 · 최민욱(2011).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 이미지 광고의 역할: SK 텔레콤 알파라이징 광고캠페인.” 『광고학연구』 22-6. pp.171-186.
3. 박동형(2011).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 연구: 확산탄금지협약(CCM)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1-1. pp.179-198.
4. 이모영(2008). “예술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시지각의 문제.” 『미학 · 예술학연구』 27. pp.269-298.
5. 김광희(2003). “부재 논항의 결속에 대한 의미론적 제약.” 『한국어 의미학』 12. pp.99-126.
6. 박지현(2008). “프랑스 이민법을 통한 EU의 유럽시민권에 대한 역사적 진단.” 『서양사학연구』 19. pp.119-143.
7. 천병식 외(2008). “비약액계 급결성 슛크리트재의 강도특성과 친환경성.”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9-5. pp.29-36.
8. 김미희(1997). “뇌졸중환자 가족의 간호요구.” 『한국기분간호학회지』 4-2. pp.175-192.
9. 김창렬 외(2006). “물리탐사 기술의 석회암 지반침하 지역 공동탐지 적용성 연구.” 『물리탐사』 9-4. pp.271-278.

이준호(Junho Lee)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전화번호: 032-540-1218

전자우편: juno0505@ginue.ac.kr

투고일자: 2012. 4. 20

심사(수정)일자: 2012. 6. 13

게재결정: 2012. 6. 20